

금리 1%대 곤두박질... 이자 생활자 '한숨'

1억 맡기면 이자소득 月 16만여원 그쳐 은행들도 곤혹... 주가연동에 금 등 권고

최근 교단에서 은퇴한 김모(66)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자니 미래가 불확실하고, 저축을 해 이자로 생활하자니 받는 돈이 너무 적어 양에 차지 않기 때문이다. 1억원을 2.4% 짜리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넣어두면 한 해 받는 이자는 240만원. 여기서 이자 소득세를 빼면 주머니에 남는 돈은 203만400원이다. 매일 16만9200원 받는 셈이다.

같은 금액을 맡기는 정기예금 금리에 은퇴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직장인은 물론 은퇴자까지 저금리 시대 재테크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민트 정기예금 기본금리(3개월 만기)는 연 1.7%까지 내려왔다. 온라인 전용 상품에 가입해야 간신히 2%대 금리(2.39%)를 받을 수 있다. 역시 만기가 3개월인 국민은행의 국민슈퍼 정기예금 금리는 연 1.9%, 산업은행의 KDB드림 맞춤 정기예금은 1.95%다. 2%대 중반을 유지했던 정기예금 금리가 1%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은퇴 이후 정기예금 등으로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적어도 5만여 명. 주로 이율이 높은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하고, 여력이 있다면 펀드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년전 퇴직해 이자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박모(72)씨는 "퇴직 당시만 해도 연 6.5%에 달하는 정기예금이 있어 생활에 보탬이 됐는데 지금은 1%대까지 떨어져 고민이 많다"며 "최근 이런저런 투자상품도 권유 받지만 원금손실 등이 우려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은퇴자의 경우 노후생활자금 용도로 정기예금을 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의 장기상품을 원하지만 금리가 1%대 바다 수준이라 고객 유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온라인 가입을 유도하고 사은 행사를 통해 예금 금리를 높이는 등 고객 유치를 나서고 있는 것지만 이율 폭이 크지 않아 한 번 투자 의지가 꺾여버린 고객의 마음을 돌리

주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 현황

은행	상품명	금리(%)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광주	플러스다모아	2.1	2.2	2.3	2.4	2.5	2.5
	KJB골든에이지	"	"	"	2.7	2.8	2.8
	그린스타트	"	"	"	2.5	"	"
국민	국민슈퍼e-파워	1.6	1.9	2.1	2.3	2.5	2.6
	채움	1.8	2.1	2.4	2.6	2.6	2.7
농협	얇초회전	2.1	2.3	2.3	2.5	"	"
	KDB dream 자유자재	1.9	2.0	2.0	2.3	2.4	2.4
산업	KDB dream	"	"	2.5	2.8	2.8	"
	KDB direct/Hi	"	"	"	2.9	"	"
신한	신한 월복지	2.1	2.3	2.3	2.5	2.7	2.8
	민트(Mint)	1.5	1.7	2.1	2.4	"	"
우리	우리토마스	1.5	1.7	2.1	2.6	2.7	2.8
	키워	2.0	2.1	2.4	2.5	2.5	2.6

(자료: 은행연합회)

기가 쉽지만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중은행들은 기존 정기예금에 우대이율을 얹어주면서 고객 유치를 나서고 있다. 산업은행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다음달 말부터 다이렉트 정기예금 기본금리 2.9%에 0.05%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주는 상품을 출시했으며, 다른 은행들 역시 주력 정기예금 상품에 이율을 올리는 등 적극적 판매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 우대이율을 얹어도 최대 3%대 수준의 이율에 그칠 수밖에 없어 보다 고금리를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확정금리형 상품이 아닌 주가지수연동예금(ELD) 상품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최저금리가 보장되고, 주가가 내려가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품 등 여러 구조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금리가 불안정스러운 고객에게 ELD가 대안 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6일 서울 중로구 금호아시아나 본관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 출정식에서 금호타이어 레이싱모델과 엑스타 레이싱팀 일본 출신의 이데 유지 선수(왼쪽), 김진표 감독(오른쪽)이 파이팅을 다짐하고 있다. 엑스타 레이싱팀은 4월 개막하는 CJ슈퍼레이스의 최상위 클래스 '슈퍼6000'에 첫 출전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제공>

저소득층 月 최대 34만원 주거급여 지원

10월부터... 전·월세·사글세 등 임대차 계약 적용

10월부터 전·월세를 얻어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된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한구도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지원해준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 지역은 모두 4개 범주로 나뉘는데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주시를 비롯한 광역시가 3급지, 전남 등 나머지 지역이 4급지다.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못 미치느냐, 이를 넘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전액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가구원이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지급까지는 부모가 사는 집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원하면 임대료가 비싼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지방과 서울에 나누어 사는 가족의 경우 통상 임대료가 비싼 서울 쪽 가족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와 함께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기준임대료의 60%까지를 주거급여로 지급한다.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도 석 달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집주인)에게 급여를 직접 지원한다. 연체된 임대료를 상환하면 급여는 다시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뒤 10월 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 팩스(044-201-5531)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 3D융합산업

기술교류회 최종보고회

신성장 3D사업 발굴을 위한 '광주 3D융합산업 기술교류회 최종보고회'가 26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렸다.

광주시에 (재)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기술교류회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40여명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해 3D산업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3D공간정보, 3D융합기기, 3D의료교육, 3D광고전시 등 4개 특화분야를 발굴했으며 28개의 RFP(사업 제안서)를 도출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발굴된 특화분야를 정부의 각 부처별 정책기조에 반영하고자 미래부가 주관하는 국가 전략사업에 ETRI와 홀로그램사업, 산업부가 주관하는 메가프로젝트 사업에는 3D프린터 소재분야를 각각 추진 중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6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열린 '근골격계 질환 예방 캠페인'에서 시민서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중용 기아차 광주공장장, 정재중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왼쪽부터)이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기아차 제공>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 기업 경쟁력”

기아차 광주공장·고용청·안전공단 합동 캠페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26일 산업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방법을 전파하기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과 2공장 정문, 하남 버스특수 공장 정문에서 진행했으며 기아차 광주공장

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합동으로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시민서광주지방노동청장과 정재중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을 비롯, 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에서 20여명의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기아차에서는 김중용 기아차 광주공장장과 단위공장장 및 부서장 등 총 70여명의 임직원이 근골격계 질환 없는 광주공장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임동률기자 exian@

근골격계 질환을 손쉽게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의 올바른 방법과 효과를 담은 홍보물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했으며 이와 함께 매일 아침 실시하는 스트레칭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 나갈 것을 독려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10월 안전관리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2014년 재해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활동 추진 ▲현장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안전관리활동 전개 ▲폐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작업 전 스트레칭 생활화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 참여 등 네 가지 사항을 결의해 실천하기로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 금융그룹

**자
존
나
가
는
직
장
인
의
일
짜
배
기
월
급
통
장**

직장인우대종합통장
※ 1인 1개좌 가입가능

다양한 우대 서비스

- 전지금융 수수료 면제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면제
- 다양한 예금금리 우대
- ※ 직장인우대종합통장 특약에서 정한 수수료 면제 및 금리우대 기준에 따름

급여 이체하는 경우 추가혜택

-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면제(월 5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 면제(월 10회)
- 환전 및 당발 송금수수료 최대 50%할인(국내이체 수수료 제외)
- ※ 직장인우대종합통장 특약에서 정한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에 따름

**자
존
나
가
는
직
장
인
의
일
짜
배
기
재
테크
방
법
직
장
인
우
대
적
금**

상품 특징

-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의 장점을 통장 하나에 결합
- 월 급여는 정액적립식, 보너스는 추가적립으로 불리기
- 이사, 결혼, 출산, 창업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비용이 아닌 기본이율로 부담 없이 해지가능
- ※ 계약기간 1/30이상 경과한 경우로 직장인우대적립 특약에서 정한 특별 중도해지 기준에 따름

우대금리 제공 (만기 해지하는 경우 제공)

- 급여이체 고객에게는 급여이체우대이율 연 0.3%p 제공
- ※ 직장인우대적립 특약에서 정한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에 따름
- 추가적립 금액에는 보너스저축우대이율 연 0.2%p 제공
- ※ 월 정액적립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최대 5만원 이상 분기 1회 추가적립가능

KB 국민은행

※ 이 예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구별된 모든 예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한액인 5천만 원에 한합니다.
※ 상한 서비스는 각 상품의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충족해야 하며, 특약 변경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광고문 또는 고객센터(1599-9999)로 문의하십시오.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연말(12/31) 상한액 : 세 621,802,013, 10 211